

과학도시 대표 미술관, 미디어아트서 답을 찾다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6>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엑스포 영향으로 정체성 확립
매년 굵직한 미디어아트 기획전시
카이스트와 예술가·과학자 협업도

1998년 둔산대공원에 문 열어
평면작품 1055점·입체 164점 소장
국내 두번째 개방형 수장고 설치 추진



대전시 서구 둔산대공원에 자리한 대전시립미술관. 조각잔디공원, 분수대와 함께 독특한 외형으로 대전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대전 둔산대공원에 자리잡은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이상봉·이하 대전미술관)은 우주선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독특한 형상으로 유명하다. 미술관 앞에 설치된 날찍한 분수와 조각품으로 장식된 잔디공원은 대전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다.

특히 둔산대공원은 대전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등으로 구성된 한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지난 3일 방문한 대전미술관은 평일임에도 단풍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대학생, 젊은 연인들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현재 열고 있는 전시는 가을맞이 기획전 '정물들의 변종'(10월24일~12월17일)이다. 기존 캔버스 테두리 안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정물화가 20세기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모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움직이는 정물 '꽃과 만물'을 출품한 광주 출신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구성연, 권오상, 유근택, 이인진, 이인희, 송병집, 정광호, 황순일 작가가 참여했다.

안내를 맡은 송미경 학예사는 "대전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층에 있는 1~4전시실을 통째로 기획전에 할애하고 있다"며 "전시 콘텐츠 측면에서는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각종 자체 기획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은 형제지간이라고 할만큼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 둘다 지역 미술의 발전과 세계 진출을 목표로 대전이 1998년 4월, 부산이 같은해 3월 문을 열었다.

초창기 대전미술관과 부산미술관은 광주시립

미술관을 모델로 삼아 운영·조직·조례 등을 꾸린다. 당시 공립미술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었지만 규모나 재정면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이 모델로 삼기에 무리가 있었다.

오래 모든 공립미술관이 그렇듯 대전미술관도 정체성에 대한 성장통을 겪었다.

송 학예사에 따르면 신안선이 발견되며 해저에서 건져낸 유물을 전시·보관하기 위해 국립광주박물관이 세워졌던 것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소장품이 먼저 확보된 후 세워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공립미술관은 미술관 건물을 먼저 세워놓고 어떤 콘텐츠를 채워넣을지 고민하는 기형적 구조로 시작했다. 대전미술관도 초기에는 구체적인 정체성 정립 없이 여느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한국 미술사를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을 꾸려나갔다. 더군다나 대전미술관이 모델로 삼았던 광주시립미술관은 예산을 세워 미술작품을 수집하기보다는 기증에 맡겼기 때문에 소장품 수집 정책을 참고할 수 없었다.

대전미술관이 미디어아트를 정체성으로 삼게 된 데는 지난 1993년 열렸던 대전엑스포의 영향이 크다. 당시 대전엑스포 재생조형관에 설치됐던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프랙탈 거북선'이 지난 2001년 대전미술관으로 관리전환됐다. '프랙탈 거북선'은 2층 중앙홀 한가운데 자리잡아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미술관의 대표작품이다.

'프랙탈 거북선'을 모티브로 대전미술관은 미디어아트 전시를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2001년 '미술에 담긴 과학'을 시작으로 2002년

세미나를 포함한 '미디어아트'전, 2004년 '미디어아트 리얼리티 체크'가 열렸다. 2005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대규모 미디어 전시를 열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년마다 열고 있는 '프로젝트 대전'은 대전미술관이 가장 신경쓰는 대표 전시다.

대전미술관의 장점은 언제나 최신 과학기술을 미술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불리며 광주시립미술관도 자연스럽게 '인권·평화'를 정체성으로 삼았듯 대전미술관이 미디어아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이미지도 한몫했다. 2007년 열렸던 '모자이크 시티'전 등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협업하며 작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이 한단계 도약한 시기는 지난 2006년이다. 대전미술관은 불룩버스터 전시 '20세기 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를 자체 기획하며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2007년 '시그마 폴케·미지의 세계에서 온 음악', 2008년 '세브르 도자기 특별전'을 주최했고 2011년 15만명이 방문했던 '모네에서 위홀까지'를 열며 자체기획전의 정점을 찍었다.

미술관 기획력이 인정받자 소장품 수집도 탄력을 받는다. 현재 소장품 현황은 1219점으로 평면작품이 1055점, 입체가 164점이다. 초창기에는 회화 위주 작품을 중심으로 소장했다면 현재는 뉴미디어 작품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립미술관에 비해 작품수집 예산은 가장 적지만, 양질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는 작품 구입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관 이듬해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은 3억원으로 동일한 상황

에서 구입 작품수는 2000년 40점, 2002년 31점, 2008년 24점, 2011년 36점 등 매년 수십점이었 다. 하지만 2015년 3점, 2016년 7점, 2017년 9점 등 2015년부터는 작품수가 적더라도 명품을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는 예산이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다.

대전미술관은 한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이어 미술관으로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개방형 수장고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꼽히고 있는 후보지는 대전엑스포전시장과 옛 충남도청 건물로, 작품 전시와 보관 기능을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 '프랙탈 거북선' 등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한군데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화센터도 같이 만들어 미디어아트 등 각종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전미술관이 아쉬웠던 점은 미술관 외부에 별관 형태로 자리잡은 어린이미술관과 레지던시 운영 부재이다. 어린이미술관은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안내센터 건물 2층에 자리잡아 접근이 불편했다. 또 레지던시는 등록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에 추진했지만 건물 보호를 이유로 무산됐다. 전국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대전에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 이이남 작가 등이 참여한 '정물들의 변종'전.



2층 중앙홀에 전시된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